

건강 칼럼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삶

인간은 동물(動物)이다. 만고 불변의 진리요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깨져가고 있다. 동물인 사람 즉 움직이는 불체인 사람이 금세기 들어 여러 이유와 배경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둔해져 가고 있다.

어떤 이는 외형상으로는 환자도 아닌 정상인인데 일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움직임에 적응된 세월이 인류고학적으로 보면 최소 200만년에서 ~ 최고 600만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온갖 자연의 약조건에서 생명을 이어온 우리들이기에 DNA 속에는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가는 끈질긴 생명력이 기억, 저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긴 역사의 세월 동안 잘 다듬어진 작동기전에 심각한 오류가 빚어지고 있다. 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삶의 형태가 바뀌면서 고유성이 변질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을 넘어 할나이의 시간에 달하다.

요즈음 입단 열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보안 등등... 하루가 다르게 만들어지는 기상천외한 단어들의 홍수 속에 떠밀려 살고 있다.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서로 뒤섞이는 기술의 융, 복합사대로 접어들었다. 3차 인터넷에 의한 의사소통의 발전과 재생 에너지의 발달에 의한 수평적 권력구조로 체계가 바뀌어 가고 있다. 길으로는 거창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현재 매일매일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은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규모와 범위, 내외부의 복잡성 등은 21세기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우리 손에 들어왔던 공산품을 비롯한 여러 산물들이 제조업이라는 틀을 빌어서 정보통신과의 융합과정을 거쳐 여러 단계의 전달과정이 생략을 거듭하여 직접 전달되게 되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직거래가 실현된 것이다. 즉 무엇이든 대부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다.

적어도 200만년동안 이어져 온 삶의 형태가 불과 1~2년 사이에도 바뀌게 된 것이다. 고유 DNA의 속성에 빛의 속도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생물체는 그렇게 빨리 적응을 하지 못한다. 수많은 오류를 반복하면서 최소한의 적응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최소한의 적응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그 DNA는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즉 변화의 속도를 버티지 못하고 자체오류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는 삶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전혀 없을 정도의 삶의 형태로 변해갔다.

우리네 삶은 그 변화의 속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각종 불협화음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것이 신체의 변화다. 긴긴 역사의 세월동안 적응된

세포들이 단기간에 신호전달에 문제를 일으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과체중과 비만이다. 이를하여 생활 습관질환이다. 한 세대 전만해도 없던 현상들이다. 그 짧은 시간 만에 과체중과 비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전인구의 30%를 넘어가고 있다.

문명의 발달, 4차 산업 혁명이 추구하던 세상은 무엇이었던가요?

윤택하고 바람직한 세상을 꿈꾸어 왔을 텐데, 그것을 영위할만한 건강한 심신상태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할 무거운 숙제라고 본다.

움직여야 할 동물(인간)이, 움직여야 살아가는 동물이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임 수가 없다. 그럼 동물이 아니고 식물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에너지를 사용하여 편리하고 빠른 것도 좋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몸을 망가트리고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임을 자각하여 조금 불편하고 조금 늦어도 굵은 팔방울을 흘리고 근육을 써야만 내 몸이 살아가는 것이다.

당장 내 몸을 움직여 봅시다!! 진정으로 나 자신과 가족을 사랑한다면,

\*\*출처 : 아웃소싱 타임스 (http://www.outsourcing.co.kr)

독자재언

여름철 차량내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최근 3세 어린이가 3시간 이상 차량 안에 방치돼 열사병으로 숨진 일이 발생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밀폐된 차량에 방치되었다가는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 버스 기사가 아이들이 내린 뒤 세차까지 했지만 질은 선풍기로 인해 차량 내부에 자고 있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사고의 원인으로 어른들의 부주의와 함께 차량의 과도한 선풍도 문제화 되고 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 정오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차량내 온도는 60~70도 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성인에 비해 체력이 약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60~70도

에 달하는 온도에 2~30분만 노출되어도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해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어린이 스스로가 경적을 찾아 울리거나 손으로 누르지 못한다면 영등이를 이용하여 경적을 누르는 요령, 창문을 두드려 지나가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어린이들이 하차 후에는 차량내에 다른 어린이들이 남아있는지 또는 잠이 들어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차량내부를 꼼꼼히 살펴며 어른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신서윤고창서 교통관리계 경사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EU, '독점' 위해 안드로이드 불법 활용한 구글에 5조원 벌금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태제 경쟁분과위원장이 지난 18일 구글에 안드로이드 관련 50억 달러의 벌금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커미셔너는 덴마크 경제장관 출신이다.

사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욕심을 내자

지금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욕심을 내야 한다. 때마침 제3차 도시 재생 광역합치 포럼이 전주에서 열려 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팔복체육공장에서 열린 그 광역합치 포럼의 자리에는 김한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송하진 도시사와 김승수 시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인증을 남기기도 했다. 다들 밝게 웃음 짓는 얼굴들이었는데 전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기대해보는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정부의 공모에 응한 결과 좋은 성적을 보여줘 도민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것은 분명히 제3차 포럼 같은 것이었다. 전북도는 올해도 반드시 성과를 보여 주어야겠다. 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사업에 5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사업 기간 동안 있을 몰가 인상을 감안해도 정부가 밝힌 그 50조 원은 거대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 한 해 예산이 2조 원이 못 되고 있음은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전북도더러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 계속 주목하라는 이유는 그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는 사업의 선점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의 형편을 살펴야

제조업체들의 형편을 살펴야겠다. 이같은 당부의 맑은 이변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 도내 제조업체들과 관련하여 지역 경제를 열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금이다. 열세한 기업을 살리는 게 목소리가 됐지만 예전과 비교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 않다. 일가간의 브드를 떠올리지만 도내에 제조업체가 증가했다지만 말이다.

그래서 지금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도내 제조업체들이 증가세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 불과 얼마전만 해도 도내 제조업체는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다. 제조업체들이 늘어나는 것과는 반비례로 대다수의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실상에 맞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전북도는 비관적인 보고와 낙관적인 보고 사이에서 상황 파악이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내 제조업체들의 실제 형편을 면밀히 살펴야겠다는 것이다. 도내 제조업체가 늘었지만 50명 미만의 업체가 아직도 9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제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 제3차 포럼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방에도 말했다시피 방식이다. 서울시민의 지적편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수도권 맞춤형 정책'으로 위험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와 연대해 제약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 도내에 혜택을 줄 것이지만 그래도 마냥 낙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의 소신이 팔레니까 말이다.

본보는 도시 재생 사업에 욕심을 내야 한다고 여러번 재촉한 바 있다. 특히 전주시를 향해 그런 말을 자주 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번엔 도시는 사람을 담은 그릇이라고 했는데 매우 멋있는 표현이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0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50를 위해서라도 전주시는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 각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거주 인구가 줄고 있다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서 사업 성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구도심 지역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자는 당부이다.

또 형편이 어려워지면 즐움이 도산할 지 모른다는 열려를 갖게 한다. 지난 수년 간의 사례가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한 때 수출이 늘었다면서 발전의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수출이 떨어지면 우리 지역의 경제는 정체된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정이 어떤지 궁금하다.

지금 중소기업위원회는 체감경기를 안 좋게 느끼고 있다. 도내 제조업체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중소기업들도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 데 대기업만큼이라고 역한이 왔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가벼운 지원만으로 중소기업들을 고무시키려고해서는 안 된다. 지난 날 어려울 때는 도내의 영세한 기업들이 한 단위 연고하고 한도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청과 난원에서 대량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그것을 상쇄할만한 맑은 소식이 전혀 없는 지금 전북도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걸 찾아오면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 영세한 제조업체들은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